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의 연구개발현황

한국가스공사는 21세기의 세계일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완벽 시공, 안정 공급, 고객만족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국내경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국적인 천연가스 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내의 가스산업발전 및 기술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스산업 분야의 기술자립도 향상 및 기술수준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지난 '90년 5월 설립한 연구개발원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2만5천평 부지에 연구동, 시험동, 교육훈련동 등을 갖춘 본원과 인천시 인천생산기지내 3천2백평의 부지에 분원인 LNG기술연구센터 및 인천시 중동기지내 4천5백평의 부지에 중동유량계검교정센터 및 인천시 중동기지내 4,492평의 부지에 중동유량계교정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수학한 80여명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가스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불철주야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연구개발원은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설비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기술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기업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분야로는 생산·공급설비 기술분야, 유체계량분야, 안전분야, 방식재료분야, 화학공정분야, 이용연구분야 및 경제경영분야의 연

구를 추진하여 153건의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13건의 기술이전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분야의 연구개발 저변확대를 위하여 산·학·연 협력연구를 시행하고, 대학 및 연구소의 지원을 위하여 대학협력과제, 학연협력과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와 병행하여 공사의 천연가스 수요개발, 설비안전성 향상 및 천연가스 산업계의 기술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정용 냉온수기, 가스 누설경보기, 지하매설물 탐지장치 등 제품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시대의 조류인 투명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시행중인 임원급 개방형 임용제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원장에 부임한 신입 이범순 원장은 서울대에서 금속공학을 공부한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재료공학 석사,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금속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 후 미국 브룩헤븐 국립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실장을 지낸 후 97년 귀국해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재료부식연구소장을 지냈다. 99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시 미국 연구소에서 연구하다가 연구개발원 부임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해외초빙 고급 과학기술자로 근무하였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과 선진연구체제를 접목하여 미래 지향적인 연구개발원이 되도록 적극노력 할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개발분야는 먼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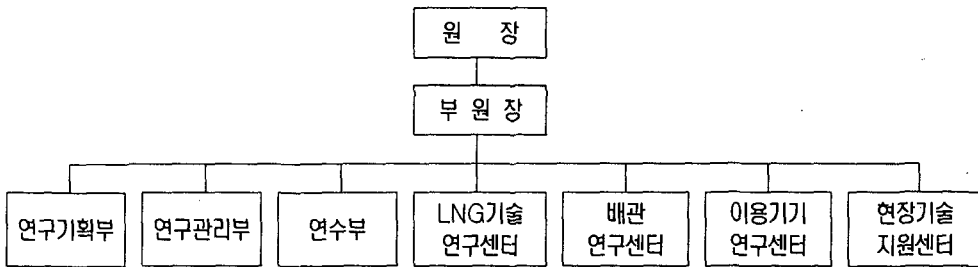
LNG 저장탱크 설계기술의 국산화 완료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인텔리전트 피그 기술개발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3월 12일 센추리와 계약한 소형 흡수식 가스 냉난방기의 기술이전을 통한 성공적인 상품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가스수요 창출을 위한 가스이용기기 개발 및 상품화에 주력하고 가스설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기술개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며,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고부가가치 물질 개발, CNG관련 연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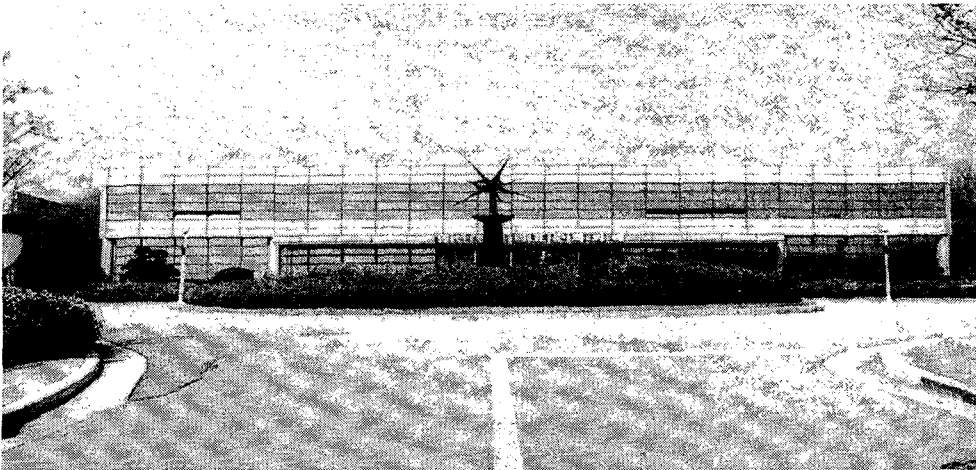
계획이다.

연구개발 기반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방폭실험실을 구축, 운영하고 연구개발 기술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기술개발과 병행하여 국외의 천연가스 선진연구소인 GDF(프랑스), Osaka Gas(일본), Tokyo Gas(일본), Brookhaven National Lab.(미국), IGT(미국) 등과의 협력협정을 강화하여 선진 기술습득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도시가스사 등과도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효과 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원 조직도



연구개발원 전경